

우리의 발걸음
 광활한 대륙으로
 뻗어 나가길...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하고 선군정치를 배운 광개토태왕의 능.



윤명철 교수의 설명을 듣는 대불련 탐방단.



비사성 고산사에서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대불련 탐방단.

대불련 'COREA의 고구려 역사를 찾아서' 동행취재



백두산 천지에 오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고구려 탐방단.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었던 고구려를 통해 우리 민족의 역사가 반도가 아닌 광활한 대륙의 역사를 깨달았어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조용석, 이하 대불련)가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COREA의 고구려 역사를 찾아서'를 주제로 중국 동북지역에서 진행한 고구려역사유적탐방에 참가한 강운미(항공대 2학년) 학생은 “우리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항 석남사 중심회 회장, 정기웅 건국대 교수, 추진 김화수 선생을 비롯 대불련 한승희 지도위원장, 홍지연 지도위원과 회원 50여명등 총 60여명의 탐방단은 고구려 역사 유적을 탐방을 통해

크지는 않았다. 집안은 도시가 새로 만들어 지는 듯 건물공사가 한창이었다. 광개토태왕비 및 태황릉 주변은 모두 말끔히 정리돼 있었다. 유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해 비석에는 유리막을 설치했다. 사진촬영도 엄격히 통제됐다.
 개방된 4호 고분의 안에는 결로 현상으로 벽화가 하루에 1년씩 빠르게 부식이 진행되고, 장군총의 뒷부분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일부 남아있던 국내성터는 돌을 화강암으로 한다가나 다듬거나 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그저 아무물이나 모아 새롭게 성터를 쌓았을 뿐이다. 환도산 성 앞의 수많은 고분군도 누구의 것인지도 모른 채 서서히 폐허로 변하고 있었다.

역사 새로 쓰려는 중국의 '동북공정' 절실히 느껴 고구려 역사 왜곡 심각...광개토태왕비 촬영 통제 1300계단 지나 백두산 정상에 오르니 '만세' 절로

중국이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시도하는 동북공정이 역사전쟁임을 실감하고 바람직한 동북아 미래상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
 본격적인 답사일정이 시작된 26일, 첫 방문지인 압록강 하류의 고구려 박작성은 호산장성으로 바뀌어 있었다. 시멘트등으로 새로 복원되고 있는 박작성은 만리장성의 최종남단이라 표기돼 있었다. 여기에서 호산장성 박물관에는 만리장성의 동북단이 평양성까지 표기된 그림도 눈에 들어왔다. 또 고구려 성터중 유일하게 남아 있어 역사적으로 귀중한 자료였던 박작성의 우물이 메워져 있었다. 그 우물에서 3.7m의 고구려시대 유일한 목선과 나무노가 발견됐으니 중국이 만리장성으로 주장하는 것에 비춰보면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오후에는 5시간을 달려 고구려 옛 수도인 국내성이 있었던 압록강 중류지점에 위치한 길림성의 집안에 도착했다. 집안으로 오는 길에는 소서노가 건넜다는 비류수가 아름다운 산기슭을 구비치며 도도히 흐르고 있었다.
 고구려의 426년간 수도였던 집안은 생각보다

"훼손 되는 것이 더 가슴아파"



“책으로만 보았던 역사를 직접 느끼고 싶었습니다.”
 대불련 고구려역사 유적탐방단에 참가한 강운미(항공대 2년) 사진:양은 “중국 동북지역 답사를 통하여 동북공정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돼 보람 있었다”며 “고구려 유적이 중국 동북공정으로 왜곡되는 것 보다 무참히 훼손되는 것이 더 가슴 아파”고 밝혔다.
 강 양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고히 하고 무한한 자신감을 얻었다”며 “대학생 불자인 만큼 고구려 역사에 머물지 않고 우리 역사 전체를 바로보는 시각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구려 유적들을 보다보니 “중국이 고구려를 지방의 호족정권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역사로 만들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만 현재 고구려 유적지 복원과 일부분 감추고 없애려고 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고구려역사유적탐방단 윤명철(동국대 교양교육원 지도교수)의 이야기에 수긍이 간다.

27일에는 아픈 역사와 답답한 현실을 뒤로 하고 한국인의 성지이며 마음의 고향인 백두산 천지에 오르기 위해 새벽부터 바삐 서둘렀다.
 해발 700m 지점에 도착하니 백두산 서파의 매표소 입구다. 여기에서 다시 천지를 오르 내리는 전용버스를 갈아탄다. 버스는 제 1지대인 밀림지역을 한창 달려, 2지대인 87년 태풍으로 고사목이 산재한 지역을 지나 3지대인 고산화원에 도착했다. 화원에는 작은 나무들과 야생화들이 산재했다. 4지대에는 백두산 화수목(자작나무) 군락이다. 화수목들은 하얀웃을 입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5지대는 나무는 없고 오직 풀과 꽃들만 있다. 백두산의 자연을 둘러보며 올라가니 어느새 천지에 오르는 1300계단이 눈앞에 있다. 저곳만 지나면 천지인데 마음만 바랄뿐 결승은 속도가 나지 않는다.
 땀을 흘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오르니 순간 시원하다 못해 찬 바람이 몸에 엄습해온다. ‘만세’ 오지 이말 밖에는 할 말이 없다. 이런 기분을 아는 지 모르는지 천지는 파도 한점 없이 평온하다.
 천지 전용버스는 내려오는 길에 금강대협곡을 둘러 자연의 무궁무진한 조화를 새삼 느꼈다.
 탐방단은 28일, 본계를 지나가며 세계에서 가장 긴 석화동 동굴이라는 본계수등을 배를 타고 둘러본 뒤 기원전 37년부터 기원후 3년까지 고구려의 첫 수도였던 오녀산성으로 향했다.

환인현 혼 강이 800m 높이에 사면은 150여m의 절벽으로 이루어진 오녀산성은 남북 100m, 동서 300m의 평지였다. 안에는 천지라 불리는 연못이 있고, 궁전터, 점장대, 병영터등의 유물이 남아 있다.

탐방단은 29일, 고구려의 가장 아름다운성 백암산 백암성을 답사했다. 끝이 안보이는 드넓은 분지 옥수수밭의 한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백암성은 한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천혜의 요새였다. 다만 당 태종이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 성주 손대음의 항복으로 함락된 비운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현재 북쪽과 동쪽 성만 남아 있으며, 북쪽 성벽의 높이는 5-6m이다. 북쪽 성벽에서 동쪽으로 1km 걸어가면, 35m의 내성이 나타나는데, 이곳에 점장대가 있었다. 점장대는 남쪽 아래쪽 성벽은 절벽으로 되어 있으며 그 아래 태자하(太子河)가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마지막 날에는 천리장성의 맨 끝에 있는 비사성을 둘러보았다. 해발 663m의 대흑산에 있는 비사성은 전략요충지인 요동반도 남부해안에 상륙하는 수군을 저지했던 중요한 성이었다. 비사성에서 고구려 성이었다는 역사의 흔적을 찾기 힘들었다. 중국이 관광지로 급조해 건축한 새로운 성이 들어서 있었다. 성안에는 고산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법당 앞에서 탐방단은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산화해간 영령들을 생각하며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것으로 탐방일정을 회향했다.

중국/글·사진:김원우 기자

삼원국제선원 여름수련회



깨달아 인가받은 78대 선사님께서 상주하시는 정법도량, 삼원국제선원이 대웅전 건립 후 첫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국내 초유로 이루어지는 법웅선사 심명 법문을 전강대선사님의 인가를 받은 명안종사,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생생한 육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법의 향취에 취해 생사해탈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릴 인연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삼원국제선원의 수련회는 종파와 종교를 초월합니다.
 어떤 종교, 종파에 속해 있더라도 상관없이 다만 깨달음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련회 관련 문의 전화 : 011-9024-1445/011-785-0122/02-3494-0122
 수련회 당일은 광릉내 707번 종점에 오셔서 031-531-8805로 전화하십시오.

마음 성품 나는 것 아니거늘
 어찌하여 알거나 보려하며
 心性不生何須知見 -법웅선사 심명
 어찌해야 하겠는가?
 호랑이는 사조를 뛰어 넘고
 사조는 불자 위에 앉았다 -대원선사

일 시 : 2007년 8월 2일(목) ~ 8월 5일(일)
 회 비 : 60,000원
 문의처 : 02)597-2460 / 02)522-0122 / 011-785-0122
 홈페이지 : www.zenparadise.com